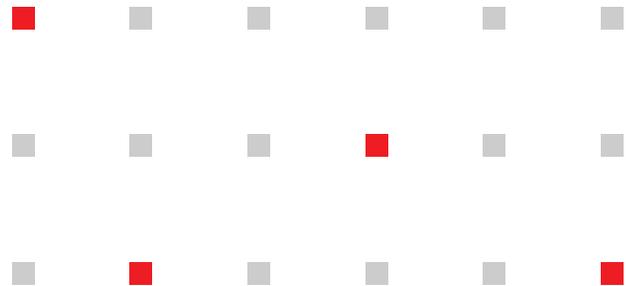




전북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

- 새만금산업단지 · 국가식품클러스터 · 김제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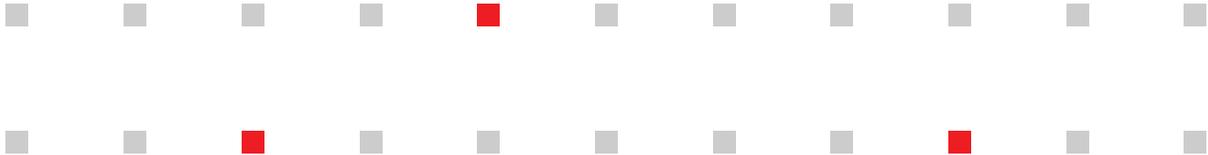


연구진 김진석 연구위원 jsk@jd.re.kr

제1장 |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

제2장 | 전북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여건

제3장 | 전북 주요산단의 투자유치활동 방향



전북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

새만금산업단지 · 국가식품클러스터 · 김제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Contents

제1장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	4
1. 2000년대 중반이후 제조업의 빠른 성장세 지속	4
2. 제조업 성장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급증	4
3. 향후 대규모산업단지 공급에 기인한 투자유치 경쟁 심화 전망	6
제2장 전북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여건	8
1. 신규 공급되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 검토	8
2. 타 시·도의 6개 산업단지와 비교분석	8
3. 전북 3개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분석 결과	10
제3장 전북 주요산단의 투자유치활동 방향	14
1. 낮은 지가와 대규모 부지공급 가능성의 활용 극대화	14
2. 전북의 양호한 투자유치여건의 적극적 홍보	14
3. 산업단지별 특성화된 강점을 활용	15
4. 전북의 개선된 투자유치여건에 대한 인식 제고	15
5.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효율적 활용	15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Issue Briefing



내용요약

- 전북의 제조업이 2004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9년 말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이 98% 수준에 이르면서 분양 가능한 산업단지 잔여 부지가 0.8km²에 불과하여 단기적으로 산업용지 공급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대 초반에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2015년까지 15.7km²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용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이러한 투자유치 경쟁은 타 시·도의 기 지정된 산업단지로부터 신규 공급될 계획인 산업용지 면적도 161.5km²에 이르고 있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북지역에서 신규로 조성되는 주요 산업단지인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강원·충남·충북·전남·경북·경남의 6개 산업단지와 투자유치여건을 비교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전북 주요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은 비교대상 산업단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낮은 지가, 용지 취득이 용이한 넓은 부지의 공급, 기계·부품소재·조선·신재생에너지·식품 등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대상 산업의 특화, 소비시장 및 공항에 대한 접근성, 낮은 생활비는 전북 내 주요 산업단지의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 항만 접근성은 비교대상 타 시·도의 산업단지에 비해 여건이 불리함
- 전북 주요 산업단지의 투자유치활동의 방향으로 (1) 전북 주요 산단의 최대 강점인 낮은 지가와 대규모 부지의 공급 가능성을 적극 활용하고, (2) 양호한 노사관계와 낮은 임금수준, 양호한 정주여건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투자유치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3) 넓고 저렴한 부지공급이 가능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새만금산업단지의 특성, 국내 유일의 국가차원에서 육성되는 식품 특화 과학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특성, 전북의 핵심 산업지역의 중심부 입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 김제자유무역지역의 특성 등 산업단지별 특성화된 강점을 활용하고, (4) 서해안고속도로 등 최근의 크게 개선된 광역고속교통체계, 새만금 개발과 함께 건설계획인 수출입항만, 국제공항 등과 같은 인프라, 전북지역의 빨라진 산업성장 속도 등 전북의 개선된 투자유치여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5) 전북이 필요로 하는 중핵기업의 유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 등을 제시하였음

제 1 장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

1. 2000년대 중반이후 제조업의 빠른 성장세 지속

- 전북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어 있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 2004~2008년까지 전북 제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3.0%, 0.8%로 전국 평균 1.6%, 0.7%를 상회
 - *2000~2004년까지의 성장률은 사업체수 -1.0%, 종사자수 -1.1%로 전국 평균 1.7%, 0.8%에 미치지 못함
 - 생산액의 성장률은 9.6%로 전국 평균 10.7%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

〈표 1〉 전북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

단위 : %

구분		'00-'08	'00-'04	'04-'08
사업체수	전국	1.7	1.7	1.6
	전북	1.0	-1.0	3.0
종사자수	전국	0.8	0.8	0.7
	전북	-0.1	-1.1	0.8
생산액	전국	9.7	8.8	10.7
	전북	8.5	7.5	9.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 각년도, 10인 이상임.

- 기업유치가 제조업 성장을 견인
 - 2005년부터 전북의 기업유치가 급증하여 2005~2009년까지 546개 기업을 유치
 - 총 투자액은 국내기업이 6조 2,152억원, 외국기업이 4억 1,970억원

〈표 2〉 2000년대 전북의 기업유치 현황

단위 : 개, 억원, 천\$

연도	국내기업		외국기업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계	603	63,694	22	419,707
2000	3	0		
2001	14	0		
2002	26	0		
2003	14	718		
2004	22	824		
2005	71	16,096	3	44,010
2006	101	9,504	5	38,053
2007	165	11,221	10	332,244
2008	96	18,091	3	3,400
2009	91	7,240	1	2,000

주 : 시·군 공장설립 승인과 도의 MOU체결 시점 기준으로 예상 투자 및 고용계획임.

자료 :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자료관) > 전북통계월보 > 통계로 본 전북)

2. 제조업 성장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 급증

- 2004년 이후 전북의 산업용지 증가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
 - 2004~2009년까지 전북의 공장용지 증가율은 연평균 4.4%로 전국 평균 2.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전북에 이어 충북(4.0%), 경남(3.8%), 충남(3.7%)의 증가율이 높음
 - 동 기간동안 전북의 공장용지면적은 연평균 1.37km²씩 증가하여 총 6.87km² 증가

〈표 3〉 시·도별 공장용지면적 추이

단위 : km², %

구분	2004	2009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면적
전국	553.40	622.18	2.4	13.76
서울특별시	5.19	3.44	-7.9	-0.35
부산광역시	19.06	19.52	0.5	0.09
대구광역시	13.58	13.21	-0.6	-0.07
인천광역시	22.54	20.06	-2.3	-0.50
광주광역시	10.46	10.87	0.8	0.08
대전광역시	7.70	7.17	-1.4	-0.11
울산광역시	41.82	44.91	1.4	0.62
경기도	108.74	126.91	3.1	3.63
강원도	19.19	17.55	-1.8	-0.33
충청북도	39.21	47.61	4.0	1.68
충청남도	56.73	68.17	3.7	2.29
전라북도	28.91	35.78	4.4	1.37
전라남도	49.65	57.41	2.9	1.55
경상북도	67.94	74.06	1.7	1.22
경상남도	60.45	73.00	3.8	2.51
제주도	2.23	2.53	2.6	0.06

자료: 지식경제부,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FEMIS).

● 중화학분야 대기업의 투자가 산업용지 수요를 견인

-전북의 산업용지 수요 급증은 현대중공업, LS엠트론, 두산인프라코어, OCI 등 조선, 기계, 운송장비, 화학 등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기업 투자가 크게 기여

● 전북의 산업용지 수요는 전북 서부권에서 주로 발생

-2004~2009년간 산업용지 총 증가면적은 6.87km²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5개 시·군에서 84.1%인 5.78km²가 증가

-동 기간동안 군산시가 3.91km²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완주군이 1.06km² 증가한 반면, 전주시는 0.26km²가 감소

〈표 4〉 전북 시·군별 공장용지면적

단위 : km², %

시·군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4~'09년 증가면적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면적
전북	28.91	30.47	31.15	32.75	33.66	35.78	6.87	4.4	1.37
전주시	2.72	2.77	2.50	2.52	2.43	2.46	-0.26	-2.0	-0.05
군산시	8.75	9.52	9.41	9.41	11.86	12.66	3.91	7.7	0.78
익산시	5.78	5.81	5.88	6.10	5.80	5.91	0.13	0.4	0.03
정읍시	2.19	2.41	2.61	2.72	2.49	2.64	0.46	3.9	0.09
남원시	1.12	1.26	1.33	1.39	1.27	1.29	0.17	2.8	0.03
김제시	2.17	2.27	2.39	3.18	2.27	2.40	0.23	2.0	0.05
완주군	3.85	3.99	4.29	4.54	4.59	4.91	1.06	5.0	0.21
진안군	0.27	0.29	0.29	0.33	0.38	0.43	0.17	10.3	0.03
무주군	0.18	0.19	0.20	0.21	0.17	0.30	0.12	10.8	0.02
장수군	0.15	0.19	0.20	0.24	0.20	0.31	0.16	15.7	0.03
임실군	0.35	0.38	0.39	0.40	0.39	0.42	0.07	3.8	0.01
순창군	0.41	0.42	0.46	0.46	0.47	0.53	0.11	4.9	0.02
고창군	0.52	0.54	0.57	0.54	0.52	0.70	0.17	5.9	0.03
부안군	0.43	0.43	0.63	0.72	0.82	0.80	0.37	13.4	0.07

자료: 지식경제부,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FEMIS).

3. 향후 대규모 산업단지 공급에 따른 투자 유치 경쟁 심화 전망

- 2009년말 현재 전북 산업단지의 부지면적은 총 51.2km²로 이 중 미분양 면적은 0.8km²에 불과하여 단기적으로 투자수요를 수용할 산업용지 공급이 부족

-전북지역에는 국가산단 3개소, 일반산단 17개소, 도시첨단산단 1개소, 농공단지 46개소 등 67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97.9%로 전국평균(98.0%)과 비슷한 수준

〈표 5〉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개발현황(2009년말 현재)

단위 : 개, 천m², %

시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전국	국가	40	862,681	556,132	268,244	234,883	233,172	1,711	99.3
	일반	368	422,461	416,440	251,548	125,036	119,637	5,399	95.7
	도시첨단	6	720	720	374	67	67	-	100.0
	농공	401	63,925	63,660	49,808	43,820	42,676	1,144	97.4
	계	815	1,349,787	1,036,952	569,974	403,806	395,552	8,254	98.0
전북	국가	3	65,586	22,818	16,282	16,282	15,855	427	97.4
	일반	17	46,719	46,700	28,429	14,230	14,145	85	99.4
	도시첨단	1	110	110	39	39	39	-	100.0
	농공	46	8,017	8,002	6,416	5,744	5,502	242	95.8
	계	67	120,432	77,630	51,166	36,295	35,541	754	97.9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9.12)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의 심화와 함께 산업용지 공급과잉의 가능성이 있음
 -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지정과 함께 2009년말 현재 전북지역의 기지정된 산업단지로부터 2015년까지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는 12.9km²에 달함
 - 2004~2009년까지의 연평균 산업용지 증가면적인 1.37km²를 신규 수요로 간주할 경우 2015년까지 신규 공급되는 산업용지(12.9km²)의 분양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9.4년이 소요

-특히, 전북지역에서 2015년까지 신규 공급되는 기지정 산업단지 중 90%인 11.6km²가 군산, 익산, 김제 등 인접 시·군에 집중하여 투자유치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또한 2009년말 현재 전북이외 타 시·도의 기 지정된 산업단지로부터 신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161.5km²에 달하여 타 지역과의 투자유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



〈표 6〉 전북지역 기 지정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2009년말 현재)

단위 : 천㎡

	시군구	개발완료 산업단지	조성중 산업단지	미착수 산업단지	향후공급가능 면적합계	'15년까지 공급가능면적
주요산업 지역	전주시		157		157	157
	군산시	427		10,120	10,547	5,487
	익산시		1,889	2,641	4,530	4,530
	정읍시	16		607	623	623
	김제시	2	1,614		1,616	1,616
	완주군	6			6	12
	소계	451	3,660	13,368	17,479	12,425
그 외 지역	남원시	110			110	106
	진안군			191	191	191
	무주군				0	
	장수군	9			9	9
	임실군				0	
	순창군	75			75	75
	고창군		37		37	37
	부안군		72		72	72
소계	194	109	191	494	490	
전라북도 합계		645	3,769	13,559	17,973	12,915

* 익산시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9년 4/4분기).

제 2 장 전북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

1. 신규 공급되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 검토

- 기 지정된 산업단지 중 규모가 큰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평선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을 분석
 - 기 지정된 산업단지 중 분양면적이 1.0km² 이상인 산업단지는 4개소

※새만금산업단지(10.1km²), 국가식품클러스터(2.4km²), 지평선산업단지(1.6km²), 익산일반산업단지(1.6km²) 등으로 총 15.7km²의 산업용지가 공급될 예정

-이들 산업단지들은 전북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산업단지 중 향후 전북의 투자유치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산단으로, 전북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 투자유치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표 7〉 신규 공급예정인 주요 산업단지 현황

단위: 천m²

단 지 명	시군구	지정면적	사업기간	조성상태	분양상태	산업시설용지면적	분양면적	향후공급가능면적
익산일반산업단지	익산시	2,794	'06~'12	조성중	분양계획	1,580	0	1,580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김제시	2,928	'06~'12	조성중	분양계획	1,614	0	1,614
새만금산업단지	군산시	18,700	'08~'20	미착수	분양계획	10,120	0	10,120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시	3,967	'08~'12	미착수	분양계획	2,390	0	2,390
계		28,389				15,704		15,704

* 익산시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9년 4/4분기).

2. 타 시·도의 6개 산업단지와 비교·분석

■ 비교대상 산업단지

- 전북의 3개 산업단지와 투자유치여건 비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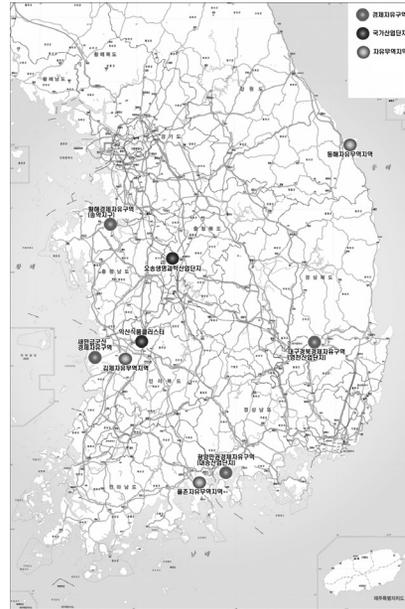
상으로 타 시·도의 6개 산업단지 선정

- 충북: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 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 경북: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산업단지)
- 경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대송산단)



- 전남: 울촌자유무역지역
- 강원: 동해자유무역지역

- ● 비교대상 산업단지의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음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식품특화과학산단이라는 전북의 3개 산업단지 특성과의 연계성
 - 전북과 투자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시·도에 소재한 산업단지
 - 현재 개발이 진행 중으로 전북의 3개 산업단지와 조성시기가 유사한 산업단지



〈표 8〉 비교대상 산업단지 선정 근거

전북지역 산단	비교대상 산단	선정 근거
새만금 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경제자유구역 입지, 서해안 입지, 대규모 산단, 신규 조성, 충남 입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입지, 내륙 입지, 경북 입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대송산단)	경제자유구역 입지, 신규 조성, 경남 입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생명산업특화 과학연구단지, 충북 입지
김제자유무역지역	동해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신규 조성, 강원 입지
	울촌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신규 조성, 전남 입지

주: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는 비교대상 산업단지 선정원칙에 일부 부합되지 않으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유사한 식품 및 생명산업으로 특화된 다른 과학산업단지가 없으므로 선정하였음

■ 투자유치여건 분석 지표

- ● 기업의 입지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요소, 산업집적, 인프라, 정주환경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0개 측정지표를 분석
 - 생산요소 분야는 토지의 취득 용이성 및 구입 비용, 임금 수준 및 인력고용의 용이성을 비교

- 산업집적 분야는 전북의 주요 산단의 유치대상 산업의 집적수준을 비교
- 인프라 분야는 물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항만, 공항접근성을 비교
- 정주환경은 종업원의 생활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표 9〉 산업단지 비교 요인 및 측정지표

분야	구성항목		측정지표	자료의 공간단위
생산요소	토지	용지취득여건	산업단지 규모	산업단지
		지가	산업단지 분양가	산업단지
	노동	임금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	산업단지 입지 시·도
		인력 수급여건	구직배율	산업단지 입지 시·도
		생산인력 수급여건	전문계고·전문대학 학생수	산업단지 통근권역
		전문인력 수급여건	대학·대학원 학생수	산업단지 통근권역
산업집적	제조업 집적도		식품산업 입지계수(LQ)	산업단지 통근권역
			화학·비금속·기계·자동차산업 입지계수(LQ)	산업단지 통근권역
인프라	접근성	시장 접근성	서울까지의 시간거리	산업단지 입지 시·군
			전국 시·도 접근성	산업단지
		항만 접근성	주요 수출입항만 접근성	산업단지
			인근 수출입 항만까지의 시간거리	산업단지
		공항 접근성	인천공항까지의 시간거리	산업단지
			인근 공항까지의 시간거리	산업단지
정주환경	교육환경	초중등 교육환경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수	산업단지 입지 시·군
			수능 1~4등급 평균 비율	산업단지 입지 시·도
		대학 교육환경	아시아 100위 이내 대학수	산업단지 입지 시·도
	의료환경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산업단지 입지 시·군
		종합병원 수		산업단지 통근권역
	주택구입 환경		아파트 매매가	산업단지 입지 시·군

주: 산업단지 통근권역은 산업단지 소재 시·군으로부터 도로통행시간 45분 이내에 속한 주변 시·군을 포함한 지역을 의미

3. 전북 3개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분석 결과

-김제자유무역지역도 타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규모가 크며, 임대료도 낮은 수준

1) 생산요소 환경 : 용지 취득이 용이하고 분양가가 낮음

- 조성면적이 넓어 용지 취득이 용이하고, 분양가가 낮음
 -(18.1km²), 국가식품클러스터(4.0km²)의 조성규모는 매우 크며, 분양가도 m²당 15만원 수준으로 저렴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공급도 양호한 수준
 -전북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임금은 200만원으로 충북(188만원), 강원(191만원) 다음으로 낮은 수준
 -구직배율이 235.1%로 강원(339.4%) 다음으로 높고, 제조업 규모에 비해 생산인력 및 전문인력의 공급도 양호한 수준

〈표 10〉 산업단지별 생산요소 환경

구 분	새만금 산업단지	김제자유 무역지역	국가식품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오송 생명과학 산단	
				황해 (송악지구)	광양만권 (대송산단)	대구경북 (영천산단)	동해	울춘		
조성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당진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영천군	강원도 동해시	전라남도 순천시	충청북도 청원군	
조성기간	2008-2020	2009-2011	2009-2013	2008-2025	2009-2012	2006-2012	2006-2010	2006-2009	2003-2008	
토지	조성면적(천㎡)	18,700	992	3,967	13,029	1,374	1,471	248	344	4,634
	㎡당 분양가 (자유무역지역은 월 임대료)	151,400원 예상	43-85원 예상	136,260- 151,400원 예상	24만-36만원 예상	18만-27만 원 예상	129,313원	69원	98원	155,554원
제조업 근로자 평균임금(시도)(만원)	199.8	199.8	199.8	213.8	244.0	212.4	191.1	244.0	188.2	
	구직배율(시도)(%)	235.1	235.1	235.1	148.1	129.6	191.3	339.4	176.9	178.9
생산 인력 (통근 권역)	소계(명)	46,904	46,265	46,168	45,406	19,474	133,676	9,236	29,086	74,609
	제조업 종사자수 대비 학생수	0.62	0.63	0.53	0.15	0.83	0.51	1.61	0.72	0.35
	전문대학교육 학생수(명)	24,775	24,356	24,259	24,433	8,378	43,995	4,695	13,879	34,317
전문 인력 (통근 권역)	전문대학 학생수(명)	22,129	21,909	21,909	20,973	11,096	89,681	4,541	15,207	40,292
	소계(명)	75,308	75,981	112,737	76,817	17,417	224,827	18,875	17,314	284,195
	제조업 종사자수 대비 학생수	1.00	1.03	1.29	0.25	0.75	0.86	3.28	0.43	1.34
대학 학생수(명)	66,434	67,107	101,039	71,771	11,632	203,637	18,397	15,790	253,075	
	대학원 학생수(명)	8,874	8,874	11,698	5,046	5,785	21,190	478	1,524	31,120

2) 산업집적 : 유치대상 산업의 발전기반 형성

- 새만금산단 및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중점 유치대상 산업인 기계, 조선,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산업 입지계수가 1.2 수준으로 특화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식품산업의 입지계수가 2.7 수준으로 특화도가 매우 높음
- 특히, 전북 3개 산단은 군산, 익산, 김제 등 전북의 산업중심지에 위치하여 연관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음

〈표 11〉 산업단지별 유치대상 산업의 특화도

구 분	새만금 산업단지	김제자유 무역지역	국가식품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오송 생명과학 산단	
				황해 (송악지구)	광양만권 (대송산단)	대구경북 (영천산단)	동해	울춘		
식품산업 LQ지수 (통근권역)	사업체수(개)	2.70	2.78	2.78	0.80	2.27	0.62	6.96	3.62	1.76
	종사자수(명)	2.95	3.07	2.85	0.74	1.62	0.60	5.05	1.98	1.74
화학·비금속·기계·자동 차산업 LQ지수(통근권역)	사업체수(개)	1.21	1.20	1.18	1.25	2.03	0.99	0.87	1.15	1.03
	종사자수(명)	1.25	1.24	1.15	1.09	1.76	0.75	1.16	1.07	0.70

자료 :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종사자 10인이상), 2008.

3) 인프라 : 소비시장 및 공항 접근성은 양호하나
항만 접근성이 불리

- 수도권 및 전국 각 지역,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은 충청권의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오송산단을

- 제외한 타 산단에 비해 양호
-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인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과의 접근성은 강원도에 위치한 동해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한 타 산단에 비해 불리

〈표 12〉 산업단지별 접근성

구분	새만금 산업단지		김제자유무역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오송생명과학산단		
	황해(승악지구)	광양만권(대송산단)	대구경북(영천산단)	동해	울촌							
소비시장 접근성	수도권	서울까지 거리(km)	230.5	223.7	193.6	90.3	374.6	354.8	276.6	374.1	131.4	
	접근성 ¹⁾	서울까지 소요시간(분)	175	169	157	101	273	256	235	280	112	
전국 접근성	전국 접근성	전국 시·도청 접근성 ²⁾	272.5	253.1	220.9	260.1	280.0	254.3	428.1	290.1	209.3	
항만 접근성	주요 항만 접근성 ³⁾		91.8	79.9	70.3	88.6	49.1	42.7	112.4	50.7	70.6	
	부산항	거리(km)	297.2	305.5	271.7	393.2	161.7	115.6	301.8	181.9	286.5	
		소요시간(분)	300	259	222	291	142	103	337	148	223	
	인천항	거리(km)	245.1	238.3	216.4	92.3	397.4	383.3	299.1	396.8	154.1	
		소요시간(분)	189	184	178	88	296	279	247	305	135	
	광양항	거리(km)	214	183	194	338.4	24.6	242.4	410.2	18.7	262.8	
		소요시간(분)	162	140	154	240	42	186	432	32	199	
	인근수출입항 접근성	항만명	군산항	군산항	군산항	평택항	광양항	포항항	동해항	광양항	평택항	
		거리(km)	113.6	30.9	39.9	24.4	24.6	59.1	3.1	18.7	103	
		소요시간(분)	21	44	74	30	42	69	7	32	83	
공항 접근성	인천공항	거리(km)	260.7	253.9	231.9	107.8	412	398.9	314.7	412.3	173.8	
		소요시간(분)	220	213	195	119	306	302	308	324	153	
	인근공항 ⁴⁾	공항명	군산공항	군산공항	군산공항	청주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거리(km)	11.3	39.2	50.5	117.3	147	71.4	91.1	150.5	20.6	
		소요시간(분)	15	46	84	99	141	53	80	118	35	

주 1) 수도권 접근성은 각 산업단지로부터 서울시청까지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거리로 계산함
 2) 전국 접근성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청까지의 시간거리에 각 시·도의 인구를 가중치로 곱한 값의 평균값임
 3) 주요 항만 접근성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까지의 거리에 각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중치로 곱한 값의 평균값임
 4) 각 시간거리는 naver의 길찾기(<http://map.naver.com>)를 이용하여 승용차 이동시간으로 계산함

4) 정주환경 : 양호한 교육·의료 여건

- 언어, 수리 등 수능 주요 영역의 4등급 이내

특점자의 평균비율이 비교대상 산단이 입지한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 100위 이내 대학도 소재



-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수는 작지만 종합병원수는 비교적 많은 수준
- 아파트 매매가는 보통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양호

〈표 13〉 산업단지별 정주 환경

구 분	새만금 산업단지	김제자유 무역지역	국가식품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오송 생명과학 산단	
				황해 (송악지구)	광양만권 (대송산단)	대구경북 (영천산단)	동해	울춘		
교육환경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수(시군)(명) ¹⁾	17.5	9.4	16.5	15.8	7.7	13.8	17.4	18.4	15.8
	수능 1~4등급 평균 비율(시도)(%) ²⁾	40.4	40.4	40.4	36.6	39.4	37.7	42.7	39.4	38.4
	아시아 100위 이내 대학수(시도)(개) ³⁾	1	1	1	0 (대전: 3)	0 (광주: 2)	1 (대구: 1)	0	0 (광주: 2)	0
의료환경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시군)(명)	2.9	2.5	2.3	7.0	2.0	2.4	6.6	3.5	5.3
	종합병원수(통근권역)(개)	13	12	12	9	4	22	7	13	20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10년7월)(시군)(만원)		109	65	118	159	71	84	90	129	122

주 1) 군산, 익산, 경북영천, 충북청원의 자료는 2009년, 그 외 시군의 자료는 2008년 기준임.(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
 2) 산업단지 입지 시·도의 2009학년도 수능성적 중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의 4개 영역의 1~4등급 비율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대학신문, <http://www.unn.net>)
 3) 산업단지 입지 시·도에 소재한 대학수임. ()는 산업단지 입지 시·도에 인접한 광역시의 대학수임. (자료: 2010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 결과, <http://www.topuniversities.com>)

제 3 장 전북 주요산단의 투자유치활동 방향

1. 낮은 지가와 대규모 부지공급 가능성의 활용 극대화

- 전북 주요산단의 가장 큰 강점은 넓은 산업용지와 낮은 분양가에 있음
 - 전북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북의 가장 큰 강점은 저렴한 지가

※이전기업들의 전북지역 이전동기는 저렴한 지가(23.1%), 지자체의 정책지원(15.7%), 고객 및 시장 확보의 용이성(14.0%)의 순으로 저렴한 지가가 가장 큰 매력

- 기업의 입지결정에서 낮은 분양가와 토지 취득의 용이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표 14〉 전북 이전기업의 이전 동기

구분	이전동기	비율(%)
1순위	저렴한 용지(임대료)	23.1
2순위	자치단체의 유인정책·제반혜택	15.7
3순위	고객 및 시장 확보	14.0

자료: 전북발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09.5월)

2. 전북의 양호한 투자유치여건의 적극적 홍보

- 안정적 노사관계와 낮은 임금수준, 양호한 정주여건 등은 전북의 유리한 투자유치여건
 - 전북 이전기업들은 전북지역의 지가, 자치단체의 정

책지원, 노무비, 노사관계, 주변환경의 쾌적성,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

-그러나 교통 및 시장 접근성, 유사동종업체의 집적수준, 전문인력의 확보, 자원(원재료) 확보, 금융, 지역의 지명도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

〈표 15〉 이전기업의 전북지역 기업유치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전북의 기업유치 여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저렴한 용지(임대료)	0.0	0.0	55.0	30.0	15.0
저렴한 노무비(급여 등)	0.0	10.0	67.5	22.5	0.0
편리한 교통접근	2.5	32.5	40.0	25.0	0.0
고객 및 시장 확보용이	7.5	27.5	37.5	27.5	0.0
원만한 노사관계	2.5	10.0	62.5	25.0	0.0

전북의 기업유치 여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쾌적한 주변지역 여건	0.0	22.5	40.0	37.5	0.0
유사동종업체 집적지역	10.0	22.5	47.5	20.0	0.0
전문인력 확보용이	17.5	42.5	37.5	2.5	0.0
협력업체와의 관계 원활	2.5	12.5	45.0	37.5	2.5
교육 및 경영컨설팅 용이	0.0	33.3	56.4	7.7	2.6
연구기관과 교류용이	5.1	23.1	59.0	12.8	0.0
자치단체의 유인·제반혜택 풍부	10.0	5.0	50.0	35.0	0.0
자원(원재료 등) 확보용이	7.7	30.8	59.0	2.6	0.0
금융권 사업자금 대출용이	0	20.5	66.7	12.8	0
지역 특성과 지명도 우수	0	25.6	69.2	5.1	0

자료: 전북발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09.5월)

3. 산업단지별 특성화된 강점을 활용

- 새만금산업단지는 새만금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넓고 풍부한 토지와 저렴한 분양가, 인근의 군장국가산단 등 산업집적지와의 연계성 등이 강점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되는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특화 과학산업단지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등 농식품 분야의 연구개발기능과 함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
-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등 전북 핵심 산업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생산기반산업과 기계, 부품 소재산업의 발전에 유리

4. 전북의 개선된 투자유치여건에 대한 인식 제고

- 교통 인프라, 산업집적 수준, 지역의 지명도

등 전북의 불리한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서해안고속도로, 익산-천안간 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의 개통 등 광역교통체계의 구축과 함께 개선된 교통인프라 여건

-물류의 경우에도 새만금의 개발과 함께 수출입 항만, 국제공항 등의 조성이 계획되어 크게 개선될 전망

-전체적인 산업집적환경은 낮은 수준이나, 주요 산단의 중점 투자유치대상 산업의 발전기반 형성

-특히, 주요 산단의 입지지역은 전북의 핵심산업지역으로 연관산업의 집적이 형성되어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기반, 교육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

- 이러한 전북의 투자환경 개선 상황에 대한 체계적 홍보활동으로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

5.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효율적 활용

- 투자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세제감면, 금융알선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에 활용할 필요

- 전북지역 유치의 중요도에 따라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핵심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센티

브 지원 필요

-필요시 이전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바람직